

# “2025년 전북에듀페이 신청하세요”

### 전북교육청,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입학지원 25~28일 · 학습 지원 내달 1~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북에듀페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지원금은 25~28일, 학습 및 진로 지원비는 4월 1~15일이다.

신청자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신청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달리 운영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이다. 학년에 따라 입

학지원금이나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으로 지급된다.

입학지원금은 초·중·고 1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신입생 대상으로 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www.jbe.go.kr/edupay)을 통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1학년을 제외한 학생 대상으로 전북에듀페이 앱 또는 학습 및 진로지원비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전북에

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된다.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한 전북교육청 특화카드며, 온라인(비대면)과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미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집중신청 기간 중에는 토·일요일에도 전북에듀페이 콜센터가 운영된다.

전북은행은 물론이고 △일부 영업점 연장 운영(오후 6시까지) △토요일 운영(일부 영업점, 오후 12시~4시) △

입시영업소(장수, 임실 지역) 운영 등을 통해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29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에듀페이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두루두루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기대한다”며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1일 전주오송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안전한 등하굣길 함께 만들어요’

### 전주오송로 통학로서 교통유관기관 등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서 교육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21일 전주오송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서 교육감을 비롯해 전주교육지원청, 덕진경찰서,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덕진지회, 한국시니어클럽(전주효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서 교육감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예방용품인 반사경을 직접 나눠주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3원칙(서다·보다·걸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교통신호 지키기 등 안전 보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미만 서행 운전 △불법 주정차 금지 △무회전시 일시 정지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전교조 전북지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담야”

전교조 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 규정,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에 전북지부의 요구안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안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반영해 치료 및 상담과 학습지원을 하며, 보호자는 협조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원(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할 수 있게 해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는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개정할 초중등교육법에 맞게 개정할 것과, 전북교육청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양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늘봄지원실장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자로 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을 공유하고, 늘봄학교 안전관리 방안 및 사례 나눔을 통해 늘봄지원실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체제 전반을 안내하고, 늘봄 지원인력과 학교 구성원 사이에 협력하는 문화

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한 늘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늘봄학교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규모별, 지역별 늘봄지원실장 네트워크를 구성해 학교 특성에 맞는 사례를 공유하고, 동료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박영표 장수교총 회장

### 전북시군교총회장협의회장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19일 열린 전북교총-시군교총 회장 연석회의에서 장수교총 박영표 회장(전천초 교장)을 새로운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영표 신임 회장은 앞으로 전북 지역 교원의 교권보호 활동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한편, 시군교총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회장은 “교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북교총이 결속을 다지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전북교총 회장단과 14개 시군교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의 형태로 진행,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의 찬성없는 현장체험 활동 전면 반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교원의 동의와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이뤄지는 현장체험활동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도내 14개 시군교총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교원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어울림·원도심학교, 농촌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 협력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원도심학교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 감소로 학습수가 줄고 있는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특히 지난해 대비 학교당 평균 130여 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학교와 지역의 특색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 2년여만에 발전기금 100억 돌파

### 전북대, 양오봉 총장 취임 후 성과 이뤘 김정옥 이사장 등 고액기부자 지속 기부 ‘큰 힘’ 양 총장도 취임 후 기부... 기부문화 확산 ‘앞장’

전북대학교 발전기금 모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양오봉 총장 취임 직후인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2023년 42억원, 2024년 52억원, 올해 현재까지 14억원을 모금했다.

지난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개교 77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77억원 모금을 목표로 양 총장 스스로가 먼저 임기 시작부터 올해까지 총 4,000만원을 기부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또한, 2000년부터 꾸준히 교과사랑을 실천한 윤신근 윤신근박사동물병원장(수의학과 72학번)도 누적 10억원 기부를 달성하며 힘을 보탤었다.

특히 2022년 60억원을 약정했던(재)김희경유류정신문화재단 김정옥 이사장이 올해 10억원을 납부했다. 고액 기부자들의 참여로 전북대 발전기금 모금에 탄력을 받았다.

한편 전북대는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 발전지원부 내 ‘기금모금팀’을 신설해 모금 활동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JNU 아너스 클럽’을 만들어 재기부 문화를 확산시켰고, 또 단과대학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JNU 기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후원의 집’을 확대해 소액이지만 지속가능한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양오봉 총장은 “많은 분들의 애정과 참여로 100억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기부자들의 뜻을 소중히 받들 더욱 더 발전하는 전북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아울림·원도심학교, 농촌유학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어울림·원도심학교, 농촌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 협력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원도심학교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 감소로 학습수가 줄고 있는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주, 군산, 익산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특히 지난해 대비 학교당 평균 130여 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학교와 지역의 특색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아울러 도심속 작은학교(원도심학교) 공동통학구를 신설하고, 동일 행정동(동단위) 학생에 한해 전·입학을 허용하는 등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를 통해 원도심학교 활성화는 물론 인구밀집 지역 과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의 경우 학생수에 따라 가구당 월 30~50만원의 체재비가 지원된다.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도 기존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 유학생들에게 풍성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평균경쟁률 6.3:1

### 7개 직종 312명 모집에 1950명 접수... 내달 26일 필기시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이 6.3:1을 기록했다.

7개 직종 312명 선발에 총 1,950명이 지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직종은 6명 모집에 676명이 지원해 113:1의 경쟁률을 보인 교무실무사였다.

또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량 확대를 위해 학교도서관에 배치되는 사서는 86명 모집에 297명이 접수해 3.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조리실무사는 185명 모

집에 340명 접수(1.8:1) △특수교육지도사는 31명 모집에 470명 접수(15.2:1) △교육복지사는 2명 모집에 71명 접수(35.5:1) △사회복지사는 1명 모집에 88명 접수(88.0:1) △과학문화해설사는 1명 모집에 8명 접수(8.0:1) 등으로 집계됐다.

1차 필기시험은 4월 26일 치러지며, 필기시험 장소는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을 통해 4월 16일 공지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6월 12일 발표되며, 7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각급 학교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검정고시 시험장 올해도 6개 권역서 운영

### 시험장소 공고... 내달 5일 시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누리집(www.jbe.go.kr)에 공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시험장 설치 학교는 전주은빛중학교, 군산중학교, 익산지원중학교, 정음중학교, 남원하늘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 등이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정고시 최종 지원자 수는 총 1,274명(초졸 86명, 중졸 244명, 고졸 944명)

이며, 온라인 지원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s://kged.go.kr)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초졸은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과 필요시 도시락 등을 준비해 오전 8시 4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면 된다.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최종 합격자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합격자는 5월 8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장은성 기자